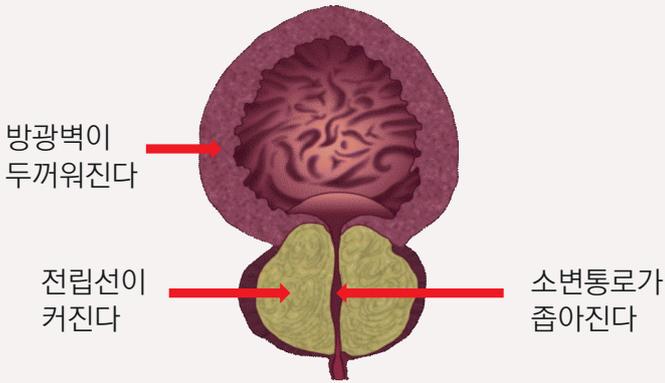


- 일시 :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 충무아트홀 1층 컨벤션센터
- 문의 : 사회사업실 02)2270-0439

## 전립선 질환과 요실금 바로 알기



### 남성 전립선 비대증

남성들은 누구나 전립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광 아래쪽에 위치한 전립선을 통해 소변이 지나가기 때문에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배뇨 기능에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전립선은 나이가 들수록 그 크기가 점점 커지는 유일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

남성들의 고환에서 만들어지는 남성호르몬에 의해 전립선이 평생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는데, 전립선의 전체적인 크기가 커짐에 따라 소변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변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면 세뇨, 요주저 등의 배뇨 곤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뇨곤란이 발생하게 되면 방광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예전보다 소변을 참지 못하고 자주 보고, 밤에도 자꾸 깨서 소변을 보게 되는 야간뇨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2-3회 이상 소변 때문에 잠을 깨게 되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여 우리 몸은 피곤해지고, 다른 건강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립선 비대증은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배뇨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처의 비뇨의학과로 내원하 시어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시행한 후, 간단한 증상 설문지를 작성하고, 혈액 검사(전립선특이항원 PSA, 등) 및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검사, 요속도 검사와 잔료량 측정 등의 검사를 시행받으시면 됩니다. 검사 상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을 받은 후에는 전립선비대증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을 처방 받게 됩니다.

보통 알파차단제라고 하는 소변을 수월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약물과 전립선 크기 증가를 억제하고 감소시키는 5알파환원효소억제제를 하루 한 번 복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약물 치료를 3개월 이상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는 대부분 내시경을 통해 이루어지며 좁아진 전립선 내부의 선종을 레이저나 전기 에너지로 깎아내어 소변이 지나가는 길을 넓게 해주는 원리로 시행됩니다.

수술 시행 후 수술 방법이나 전립선 크기에 따라 1-3일 정도 소변줄을 유치하게 되며, 기존의 전립선비대증으로 막혀 있던 길이 뚫리면서 답답했던 배뇨 증상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비대증이 진단 후 약물 치료에 효과가 있더라도, 혈뇨가 자주 나타나거나, 방광 결석이 생기는 경우 등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여성 요실금



성인 여성의 40%에서 요실금을 호소한다고 하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빈도는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실금은 여러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복잡성 요실금은 배에 힘을 주는 활동을 할 때에 소변이 새는 것으로, 주로 재채기를 하거나 크게 웃을 때, 땀 때, 빨리 걸을 때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합성 요실금은 수술적 치료로 교정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방광이 예민하여 소변을 참지 못하고 흘리는 요실금으로 대부분 방광을 안정화시키는 약물을 복용하여 조절 가능합니다.

복합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비수술적 치료로는 골반근육을 강화시키는 케겔 운동이 도움이 되며, 자기장 치료와 같은 물리 치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 절박성 요실금의 경우 보통 과민성 방광 증세를 같이 나타내는데, 소변을 조금씩 너무 자주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변을 조금 참았다가 모아서 보는 방광 확장 훈련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위와 같은 요실금 증상이 있는 경우 비뇨의학과에 내원하시면 비뇨의학과 전문의 진찰 후 요속도

검사 및 잔뇨 측정, 증상 설문지 작성 등을 시행하고, 복잡성 요실금이 의심되면 요역동학 검사를 시행하여 요실금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경질적 테이프 고정술이라는 간단한 TOT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보통 1박 2일로 간단하게 수술을 시행 받게 됩니다. 효과는 거의 100%에 가깝게 복잡성 요실금은 해결이 되고, 과민성 방광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 약물 치료를 병행하여 증상을 조절하게 됩니다.



박민구 교수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비뇨의학과

문의 : 02-2270-0078